

애
우
여
인

격려사



총장 김치선

충실의 맥속에 흐르는 르네상스 창조의 선두 주자로서 21주년을 연연히 실험극의 사명과 순수예술을 지향해온 숭대극회는 과거 77년도에 제1회 전국 대학연극제에 참가, 대상(大賞)에 빛나는 영광을 안았던 대작(에쿠우스)를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부흥기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고자 젊음을 발산하는 뜨거운 지성의 요람으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창조해 나가는 아름다운 장을 여는 극회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실상, 문자화된 예술을 가상무대를 통해 살아있게 표현한다는 말은 그 말 자체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연극을 사랑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Peter Shaffer 의 EQUUS 의 무대에 같이 호흡하며, 동참하셔서 진지한 생의 경지를 함께 나누게 되기 바랍니다.

이 연극의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한 손길위에 훈훈한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여러분의 앞길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시는 글



극회장 송기범

어림잡아 늘린 시간만 세어보아도 수억. 그러나 우리들 젊은 마음속에 끝내 숨쉬고 있는 이 한가지! 진실을 향한 정열때문에 조용히 그 긴 시간들을 삼켜왔습니다.

이제 무대가 밝아지면,
그동안 삼켜왔던 달에 얹힌 정열의 응어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때 우린 당신들 앞에서 다가올 허무를 준비하렵니다.
그동안 에쿠우스 공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선배님들과 학교측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저희 숭대극회를 아껴주시는 학생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기획의변



기획 허공

연극을 사랑하라!

연극인을 사랑하라!

연극인을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라!

도움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연 출 의 변



연출 하 승 민

화석된 검은 나문 태양이 흘린 상처
 두고 온 그요람은 돌아갈순 없는 꿈길
 엉켜진 실타래 뭇다감은 이내 두손
 무대위 발가슴이들 울긋불긋 꽂밭이네
 예서 아쉬움 남기며 돌아가는 저바쁨
 오만것 다흘러가고 날몰라라 하는다.
 구슬땀 흘려가며 넘어온 이하루
 아직도 내눈에는 털이고운 망아지야
 낸가 네가 아니면 우리낸가
 우뚝서 굽파갤쥐고 달빛을 베는자
 어둠을 몰고와 도장을 찍게하고
 목숨을 저울질 하는 눈끔시린 칫수여
 어디서 비롯하여 어디서 그치려나
 나여기 존재한다는 입증할길 없어라.
 하루 세끼 밥에 육지거리 먹어가며
 나는 온종일 뭔가 쫓고 있는데
 오늘은 얼마나 놓쳤을까
 빛나고 소중한 것을 . . .

작가(Peter Shaffer)와 작품(Equus) 연구

피터셰퍼는 1926년 영국런던의 리퍼풀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아버지와 스코틀랜드 태생인 어머니 사이에서 생동으로 출생, 그다지 궁색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2차대전이 발발하여 그는 탄광에 정용되어 고된 작업을 해야했고 이때의 체험이 직관력이 강한 그에게 부조리(不條理) 세계와 인간조건에 대한 감각을 날카롭게 닦아준 동시에 새로운 질서와 가치모색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전쟁 후 캠브리지대학서 역사학을 전공한 후 51년 뉴욕으로 건너가게 되며 이때의 쟁기는 듯한 긴장속에 타향생활이 「모든 예술은 조국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사상적 기조를 낳게 된다. 런던으로 돌아온 그는 초기에는 T. V 극본들을 썼으나, 극작가로서 데뷔케한 작품은 〈오중주(五重奏)〉이다. 런던에서 크게 성공한 이작품은 사랑과 신뢰가 실종된 인간관계를 그런 것으로 1958년 이브닝스탠더드상과 1960년도 뉴욕 연극 비평가 최우수 외국작품상을 받기도 했다. 연이여 〈개인의 귀〉, 〈대중의 눈〉, 스페인의 잉카제국 침입을 그린 〈임금의 해사냥〉, 그의 대표희곡으로 평가받게 된 〈블랙코메디〉, 〈악의 없는 거짓말〉, 〈슈라이빙쓰의 전투〉 등을 발표.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연극」이라는 극평가의 찬사를 받게 되며 일련의 작품에서 그는 아물로적 인간과 디오니소스적 인간과의 균원적 대립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기 까지 한다. 그후 2년 6개월간의 오랜 구상끝에 완성된 그의 최대 역작 〈에쿠우스〉가 1973년 영국 올드빅 국립극장에서 초연되고, 미국의 브로드웨이 까지 진출하여 막이 내리는 순간 극장안은 지축을 흔들듯한 관객들의 갈채와 환호성으로 메워졌다. 셰퍼는 존 오스본, 아놀드웨스커, 해롤드 펜터 등과 함께 오늘의 세대를 대표하는 탁월한 영국의 극작가로 이들의 공통적 작품세계는 인간의 존재와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生의 고통을 통해서 진실을 추구하기 보다는 상황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의미와 현대인의 균원적인 실존문제를 탐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에쿠우스〉는 영국법정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던 26마리의 말의 눈알을 쇠꼬챙이로 찌른 마굿간 소년의 괴기적인 범죄실화를 작자 나름의 심리적 세계로 창조한 것으로 인간소외와 고독, 정상과 비정상, 부조리, 탈출할 수 없는 기계문명의 속박, 종교와 Sex, 기성세대의 혼들리는 위신 등에 의해 귀결되어지는 현대인의 위기의식과 절망을 그린 작품이다. 비정하고 허망하며 부조리한 오늘의 현실을 풍자적인 시점에서 날카롭게 파헤침으로써 애정부재의 인간관계와 비인격성을 폭로한다. 어떠한 신분이나 성격의 인물이 아니라, 잔혹한 투망속에 갇히고 비정한 톱니바퀴에 끼어서 궁지에 몰려있는 현대인의 나상(裸像)이며, 이러한 조건이 그가 노리는 과제인 것이다. 절벽 끝에 매달린 인간조건을 파헤치고 분해함으로써 남는 것이라곤 오직 성과 폭력 - 동물과 다를바 없는 밖에 없게 된다.

현 문명세대의 인텔리계층이라 자처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 마틴과 치과의사인 부인, 도라(전직교사), 프랑크(인쇄업자)들은 부부관계 조차도 원만히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서로 길도는 소외 상태로 달혀있는 반면, 문명세계와는 단절된 알런은 스스로의 정열로 구축한 의식영역에서 馬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만큼은 소외 상태가 아닌 꿈틀거리는 生을 누리는 것이다. 순수한 - 겹절을 벗은 - 상태에선 인간과 동물(馬)도 일대일로 동등하게 만날 수 있다. 까뮈의 부조리(l'absurde - 조리에 맞지 않음, 背理) 사상처럼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어지는 차이점인 총명한 의식(예지)을 현세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라면 「사는것(동물과 다를바 없는 의식결여상태)도 부조리요, 죽는것(無의식상태)도 부조리」인 것이다.

즉, 근대합리론적 가치관에 반발하여 세계에 대한 인간의 균원적인 태도를 부조리라 규정하고 이렇게 원래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우선적 좌절을 각오, 인간적인 노력을 거듭하여 가치를 복원하는 것이 인간이 영장(靈長)일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존엄성 회복의 길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므로 부조리극(Theatre de l'absurde)은 당연히 「반항적 인간」을 낳게 되며 그가 「알런」 - 세계의 부조리와 거기에 대항하는 자유로운 행위자로서 인간이다. 매일을 전기제품 속에 묻혀살며, 광신도 어머니가 쑤셔넣는 종교의 강박관념에 억압당하고 무신론자인 아버지의 이질적 종교환경과 기성세대의 이면성에 배반당하는, 친구 하나 없이 사회에 적응시켜줄 교육조차 전혀 받지못한 환경의 motive로 부터 비정상 쾌도를 달리게 되며 나름대로의 정열(극복의지)로 말(神)과의 신세계를 창조해야 했으며 거기서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자신의 신세계 속 말은 어머니가 들려주던 강박속의 엄격한 신으로 부합되면서 「알런」은 새로운 속박 - 구속과 자유의 이율배반 - 의 굴레에 갇힌다.

각형(角型)은 이 연극의 중심점(배꼽)으로 시·공간이 자유로이 轉位되는 약속 장소이면서 원형(原型)과 함께 연극이 그렇듯이 항상 현재 상태로 존재한다. 형식상 극장주의 수법을 도입함으로써 관객은 지나친 극(劇)의 환상으로부터 보호되며 연극을 보고 있다는 자각을 수시 느끼게 된다.

알런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신(EQUUS)의 눈을 찌르는 순간은 어둠에 온통 결박되어 있는 관객의 내부를 살살 허정화시키고 해방감을 맛보게 하는 작업(예수가십자가 형벌로 죽음으로서 구원을 주듯)인 것이다. 에쿠우스에 나오는 말은 神이기도 하며, 냉혹한 기계문명의 굴레(인간을 억누르는 어둠), 흔연히 신께서 내재하는 우주의 상징적 기관이기도 하다. 말뿐 아니라 각 연기자들 역시 객관적 의미 이상의 의미 부여자가 된다. 각 연기자의 등·퇴장은 타이밍을 중시하여 시계 바늘처럼 무섭게 척척 돌아가는 기계문명을 시사하고, 앉아서 죽어있는(소외상태 표현) 연기자와 관객은 절대자가 인간을 심판하는 듯한 속박의 눈초리가 된다.

인간(질)과의 정사(소통)을 방해받은 17세소년 알런은 비정과 중압감에 억눌리어 角型안에서 말의 눈을 찌르는 신성모독체계의 처절한 성인식을 치통으로 결국 자신의 눈역시 찌를 수 - 자기 인생의 핵심인 신앙을 파괴할 수 - 밖에 없게 된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생의 의미를 찾고 실존적 존재의 확인을 위한 반항이다. 자기 스스로를 그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기 위한 자기포기로서 예수가 神性을 스스로 파괴하고 인간실현을 위해 못박힌 것과 같은 범주인 것이다. 이 연극의 주관자(主管者)인 정신과 의사 「마틴·다이사트」는 시·공간을 열어 神과 인간, 관객과 연기자를 맺어주는 중간자(샤만)와 증거자의 기능으로서 35장면을 책임있게 이끈다.

고대희랍의 회생제의를 집행하는 신관으로서의 운밀한 체험을 꿈얘기로 토로하며 한 미성년자의 성년식을 치뤄주기 위해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입무식(入巫式)을 치루는 위기와 고뇌를 겪는다. 모든 벌려진 사건들을 관객에게 소화시켜주고 위기의식과 절망을 전해 받는 당사자다. 회의에 빠진 생년기 의사, 불임증의 남편, 회랑문화에 대한 정열을 가진 이상주의자적 향수를 간직한 자로서, 웃었던 神(디오니소스적 神)을 숭상하고, 야성적, 원시적 자연세계를 동경하는 행동이 결핍된 문명인이다. 「다이사트」의 회의와 절망은 그 개인의 것만이 아닌 현대를 사는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세대의 '정상'에 오히려 정상적인 '비정상'을 적용이란 틀에 뛰어 반항하는 개성을 절단하고 쇠부치 세계로 알런을 인도해야만 하는것이 그의 역할이며, 자신이 속으로 부러워하는 세계를 직접 누리는 동경대상을 오히려 정신병자라고 치료해야 하는 아이러니를 심각히 범해야 하는것이 그의 역할이다.

결국은 마틴과 알런의 인간의 균원적 갈등과 고뇌에 대한 고투는, 불임증의 다이사트가 혼으로 거듭 태어난 자식(알런)을 잔혹한 어둠의 제단에 배꼽까지 뚫고 바쳐야 하는 또하나의 회생제의의 반복에 불가한 굴복으로 끝나게 된다.

에쿠우스의 절책을 받으며 어둠에 무릎꿇고 입에는 빠져나오지 않는 인간용 재갈을 물리운채 날마다 허물어지는 살의 무게로 생을 저울질하는 문둥이처럼 아스라히 멀어지는 시선을 받쳐들고 가일층 높아가는 고층빌딩을 세는 것이다.

나오는이(Cast)



마틴 다이사트



헤스터 살로먼



헤스터 살로먼



간 호 원

기계2 안 상 준

사학1 김 수 진

독문1 김 현 순

독문1 송 미 경

기계2 이 준석

국문2 황 금 실

섬유2 안 선 후

사사2 왕 동 미



알런 스트랑



질 메이슨



프랭크 스트랑



도라 스트랑



말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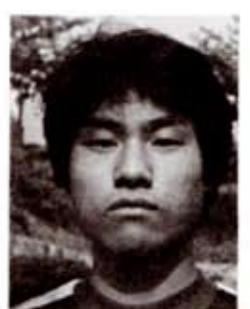
말 II



헤리 달턴



말 III



말 IV

화공1 천 승 범 무역1 권 형 진

기계2 김 인 섭

법학1 김 장 우

회계1 김 문 규



공연예술종합기획

CELL

엄 세 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69 번지

전화 738-8177

야간 736-0461

● 공연기획 ● 무대장치 ● 무대조명
● 조명DISPLAY ● 조명DECORATION



승대극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공연을

축하드립니다.

승대극회 동문일동

승대극회기획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승대극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인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승대극회는 의욕적인 기획으로 더욱 알찬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86년에도 저희 승대극회는 진정 적극적인 동참자이신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와 함께 더욱 정진 분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승대극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좋은작품, 멋진 무대로 보답하기 위해 항상 땀흘려 노력하는 승대극회의 열려 있는 문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숨은인재들(Staff)



무대감독



무대장치



분장

산공4 음태웅

산공3 이영구 불문3 최윤희

경영3 송기범

건축1 김미례 사사1 박준희



조명



음향



무대진행



진행



사학1 이경희

공연예술종합기획

극장

사무실 813-3439

(축)

승대극회 제34회 정기공연

에 쿠 우 스

선다래분식

세계적 유명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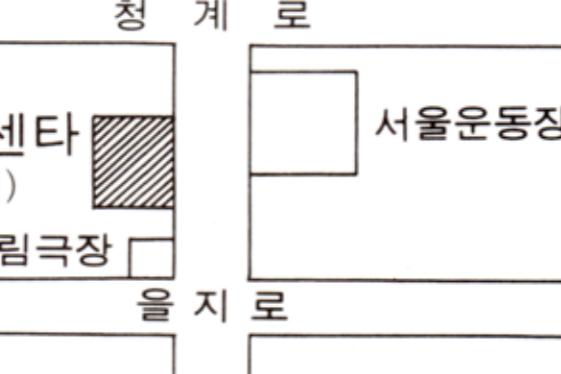
스포츠웨어 및 ACTIVE WEAR



원창물산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2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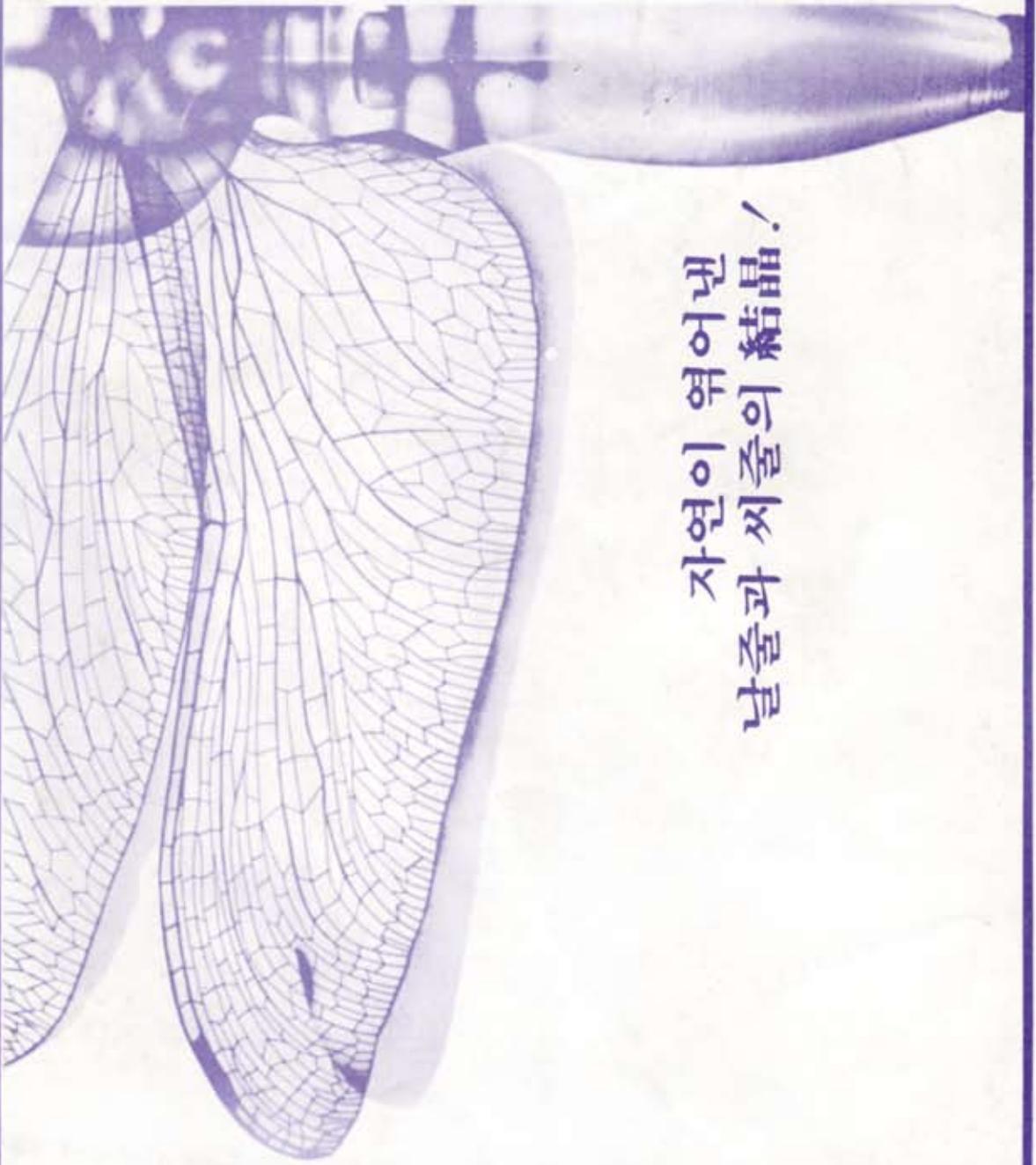
대표이사 김승렴



ASINNA CORNER : 266-7160
주문상담 : 633-5101~4

한국서예

回	年	■	作	品	名	演	出
1	1921년		연극 회 소인국 "벌새영웅 나풀해옹의 발로"				
	6 : 13		"미국 노예의 날"				
2	1923년		전민국 "우리의 행진" "동백꽃" "설날후" "기제연간"				
	7 : 7, 21		설에 설날회 주관				
3	1923년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7 : 28, 29		"페공으로 돌아온다" 활식영화 이반기획				
4	1965년		"our Town" by Thornton Wilder				
	11 :						
5	1968년		"외자들"	이오네스코	『』	이재주	
	10 : 10						
6	1969년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10 : 28, 29						
7	1971년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5 : 26, 27		"전국 노래 축제"	윤영조	『』	주정서	
8	1972년		"달에 빠져서" "날개를 펴는 새"	안돈, 쇄홍	『』	한영세	
	6 : 1, 2		"황금단지" (도미국)	무라우치스	『』	유근애	
	6 : 1, 2		"32도를 기다리며"	사랑방, 베베트	『』	자현애	
9	1973년		"여자 병의 그림자"	산·오제이시	『』	한영세	
	11 : 4, 5, 11						
10	1973년		"여기서 삶의 결혼"	F. 위센타르	『』	고봉이	
	5 : 21, 22, 23						
11	1973년		"领导干部"	H. 린데	『』	한영세	
	5 : 25, 26, 27						
12	1974년		"장미의 사람들" (전 5 액)	A. 바비	『』	성종화	
	5 : 25, 28, 30						
13	1975년		"아이와 꿈"	W. Arving	『(시) 일상화』	김봉수	
	3 : 10, 11, 12						
14	1975년		"아울터의 산책"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	오예환
	6 : 9, 10, 12, 13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계곡이"				
15	1976년		"미터안과 밀화법"	Max. Frisch		안홍순	
	10 : 29, 30, 31						
16	1976년		"모국과 어인"	이강택	『(시) 일상화』	김득남	
	10 : 29, 30, 31						
17	1976년		"인간의 삶"	장·글로드·반·이反感	『』	김득남	
	6 : 1, 2, 3						
18	1976년		"밥"	찰·알로드·반·이反感	『』	김영덕	
	10 : 25, 26, 27, 28						
19	1978년		"EQUUS"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이태·대경	김영덕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	『』		
20	1978년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이태·대경	김영덕	
	10 : 10, 11, 12, 13						
21	1979년		"한강 2979"		김영덕	『』	
	6 : 18, 19						
22	1979년		"조"	"조"	오예식	『』	장예호
	9 : 29, 10 : 2						
23	1980년		"나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M. 브라이언	『』	박임천	
	11 : 5, 6						
24	1981년		"ARIA DA CAPO"	E. St. V. Milay	『(시) 일상 환경』	오예환	
	3 : 30, 31						
25	1981년		"노부히의 방문"	F. 위센타르	『』	한정숙	
	6 : 12, 13						
26	1982년		"날꽃이 꽂"	김병동	『』	한정숙	
	11 : 12, 13, 14						
27	1982년		"임금님께는 달려가자" 김용학	『(시) 일상 환경』	이용선		
	6 : 24, 25						
28	1982년		"마리구이" A. 아우렐리	『』	지숙		
	6 : 12, 13						
29	1982년		"페도우박스" M. 크리스토비치	『』	한정숙		
	10 : 7, 8						
30	1983년		"노비의 삶" F. 위센타르	『』	김영덕		
	6 : 20, 21						
31	1984년		"노비의 삶" John Bowen	『』	오정애		
	10 : 7, 8						
32	1984년		"개인의 소공간" N. Holland	『(시) 일상 환경』	김영덕		
	3 : 8, 9						
33	1984년		"연기의 삶" John Stoltzberg	『』	이동선		
	5 : 9, 10, 11, 12, 13						
34	1984년		"나의 삶" Maxim Gorky	『』	이동선		
	10 : 11, 12, 13						
35	1985년		"나의 삶" ARIA DA CAPO	E. St. V. Milay	『(시) 일상 환경』	하승민	
	5 : 9, 10, 11						
36	1985년		"나의 삶" N. Holland	『(시) 일상 환경』	송기연		
	11 : 21, 22, 23						
37	1986년		"인생의 삶" 세리	『』	김경은		
	3 : 17, 18, 19						



일신방치은
한용마다 청성을 담습니다.

자연의 신비가 염여낸
심세하고 유효한 조화.
되어질듯 휘날림듯
안나고 이어지는
날줄과 씨줄의 경계.
이 한용 한용의 결정이 모여
매도는 미궁에 나부끼는
한정 물밀인정,
매도는 강물을 막차고 날아오르는
한마리 조류인 애
불가사의한 힘을 날습니다.

일신방치은

이 설해하고, 오피한

자연의 신비를

제품에만의 차표로 삼아
한용 한용 날줄과 씨줄에
청성을 담아 합니다.
모든 이가 누릴 수 있는
의류 생활의 풍요로움을 위해
제작한 이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제품

- 드라이 클리닝
- 세탁
- 단점제거
- 손정조율

日新紡織株式會社
社長 金英浩

TEL. 793-3701~4, 794-5206~9